



한국도요타, 아주자동차대에 장학금 8000만원 전달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지난 19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요타자동차 콘아마 마나부 대표(왼쪽), 아주자동차대학교 이수훈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



금호석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봉사

금호석유화학이 결식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봉사를 통해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나섰다. 금호석화는 본사 직원들이 종로구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급식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지역 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배식, 식사 보조, 뒷정리 등을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



메타빌드-엔터플, APAAS·플랫폼사업 공동 추진

AI·데이터연계 SW 기업 메타빌드가 엔터플과 지난 18일 APAAS(Application Platform as a Service) 및 노코드 플랫폼 사업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와 박현민 엔터플 대표가 업무협약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타빌드



인하대-인천시교육청, 기후환경 교육 교류 MOU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기후환경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와 인천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공동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영우 인하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이랜드월드,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신입공채 전형은 내달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직무는 ▲영업 ▲상품기획 ▲마케팅 ▲온라인MD ▲빅데이터 ▲글로벌소싱(생산) ▲전략기획 ▲재무 ▲자금 ▲인사 부문 등 10개 일반 직무와 ▲의상디자이너 ▲소재디자이너 ▲VMD 부문 등 3개 디자이너 직무를 모집한다.

서류 접수 전형을 시작으로 ESAT 직무적성검사, 1차면접, 인턴,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패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홍경안의 시시일각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에게 예술은 자유의 표현이다. 벨기에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는 예술을 사회적인 규칙과 문화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예술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을 포괄하기에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수 세기 동안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해왔지만, 예술 자체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쾌한 답 또한 내놓지 못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큼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시 쉽게 규정하기 어렵다.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나 정답은 아니다. 각종 재난의 시대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

예술과 역할에 대한 정의

한 인식을 되묻고 디지털 시각 체제와 현실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예술의 역할로 꼽는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같은 이들도 있다.

이 밖에도 예술의 역할에 관한 판단은 여러 가지다. 누군가는 욕망의 표출과 행복의 실현을, 어떤 이들은 인간 존재 의미의 탐구 및 전달을 예술의 역할로 본다. 혹자는 타인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제공하거나 위안을 심어주면 예술 본연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 여긴다.

모두 맞다. 그것이 실체보다 외관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피상성과 소비주의 문화에 기여할지라도, 또는 기술을 예술의 전부로 착각하는 결과물이라든가 각각의 역할은 있다. 심지어 장식적이거나 풍수적인 작품들(미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조차 어떤 이에겐 예술로서 제 구실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예술관이 다르고, 예술이 이해되는 방식에 관한 생각 또한 동일하지 않다. 미와 예술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게 답답하

지만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술의 정의와 역할이 무엇이든 굳이 예술가일 이유가 없는 것과 반드시 예술가에게 가능한 것의 분간은 필요하다. 예술가와 예술가적인 것의 간극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는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하고 현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예술로 여겼다. 요셉보이스(Joseph Beuys) 같은 인물은 예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에게 예술(가)과 그 역할이란 사회 혁신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다.

미술평론가 김영호의 말처럼 '예술은 당대의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예술은 사회적 진보와 문화적 다양성 촉진에 기여해야 하고, 부조리한 구조와 제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순응적인 모든 문법에 저항하는 실천성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빈곤한 시대다. 편협의 극단에 이른 현재다. 예술가들은 보편성을 상실한 개인의 서사와 공동체적 이슈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술제도는 방향의 정립보다 온갖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바쁘다. 만약 그것이 바른길이라면 우리 예술(가)에 대해 잘못 배웠다. 그게 영원한 진실이라면 예술의 본래 기능이란 애초 존재 불가능했거나 위선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2월 같은 지면에서 나는 "예술가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는 존재다."라고 썼다. 예술작품에 대해선 그 자체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논평자, 인류사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을 촉구하는, 대화와 변화의 촉매제라 정의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 모든 건 결국 핵심 주체인 예술가들에 의해 선도돼야 한다는 것도, 정치를 비롯해 인간 삶을 억압하는 터전을 불태워 새싹을 틔게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라는 점에서도 같다.

/미술평론가

거래소, 부산 경쟁력 강화 앞장... '아동친화도시' 후원금 10억 전달

난치질환아동 치료비 등 활용 "살기좋은 도시 될 수 있도록 지원"

한국거래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소재 KRX부산본사 6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거래소는 부산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금 10억원을 연중 부산지역 복지단체를 통해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그 첫 번째 후원으로 이를 통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발달장애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일상생활훈련, 부모교육 등 학교적응을 위한 필수교육을 후원한



(첫번째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정대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배병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희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다. '발달장애아동 학교 적응 지원'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피해아동 심리·정서 회복, 지역아동센터 및 놀이터 환경개선, 희귀난치질환 아동 치료비 지원 등 부산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후원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다"며 "이번 후원을 시작

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산시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에쓰오일, 예술인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 발전 지원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전개 아트로버컴퍼니에 1.8억 후원

에쓰오일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발전 지원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4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아트로버컴퍼니에 공연예술 후원금 1억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지난 1월에 공연한 음악 그룹 '듀에토'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에쓰오일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



(왼쪽부터) 에쓰오일 류열 시장과 정현욱 아트로버컴퍼니 대표가 20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2024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로그램이다. 에쓰오일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29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3만7000명을 초대했다.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달 공연 일정을 공지하면 가족 단위 신청자들의 문의가 쇄도해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라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스타필드 '에스 두들' 시즌2 진행

스타필드가 지난해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낙서 행사 '에스 두들(Yes Doodle)' 시즌 2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에스 두들 시즌2 행사는 스타필드 고양(3/8~3/21)과 하남(3/13~3/26), 안성(3/23~4/5), 수원(3/28~4/10)에서 진행된다. 점포별로 ▲쿠ќ름 ▲놀이방 ▲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색 체험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예금보험공사 ◇임원선임 △이사 이병재